

# '세계의 명승 금강산' '북한의 사찰' '북한불교 답사기' '북한사찰 연구'

## 책길따라 금강산 절 구경

"이곳에서 수행하지 않고는 선승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수행지였던 금강산. 산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불은(佛眼)의 향기가 배인 민족정신의 요람으로써 금강산은 실로 전후무후한 자연의 걸작품이다.

그 금강산을 이제 갈 수 있게 됐다. 관광길을 개설해 이달 말부터 연 50만명이 금강산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마하연, 신계사, 유점사... 고승들의 지취가 어린 금강산의 유서깊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관광코스에는 사찰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불교와 금강산의 혼을 담고 있는 이곳 사찰들도 곧 답사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나온 금강산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불교 관련 책은 5종 정도. 금강산 여행이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어 북한 불교 관련 책의 판매는 거의 변동이 없는 실정.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문외야기 등 동관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출판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세계의 명승 금강산'(호영 권)은 금강산내 사찰을 비교적 명확히 볼

수 있는 사진집. 관음보살이 오색 구름 속에 나타난 듯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관음봉의 실경을 비롯해 유점사, 장안사, 정양사, 보덕굴 등의 유명 사찰과 탐·석등·마애불 등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다. 다만 양장본 화보집이어서 들고 다니기에 불편한 것이 흠이다.

금강산의 불적을 사찰별로 쉽게 알아보도록 한 <북한의 사찰>(한국 불교연구원 권)은 비교적 얇고 가벼워 손에 지니기에 용이하다.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마하연사, 유점사, 건봉사, 심곡사 등의 말사까지 포함한 금강산내 사찰과 암자를 모두 소개했다. 이밖에 송도와 평양, 묘향산 등의 불적도 자세히 소개해 북한불교를 알기에는 더없이 좋다. 논문투의 설명이 읽기에 다소 딱딱해 현대 감각에 맞는 재출간이 아쉽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불교의 실상을 함께 알기엔 <북한불교답사기>(민족사 권)가 좋다. 금강산내 사찰을 포함한 북한내 주요 사찰과 유적을 담았다. 그리고 북한의 승려 등과 불교의식, 승려 교육과 양성, 각종 법회 등 법타스님(은혜사 주지)이 89년 평양축전때 한달 가량 북한에



머물며 보고 느낀 오늘의 북한 불교에 대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북한사찰연구>(한국불교종단협의회 권)는 북한 불교현황 및 사찰, 불교문화재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연구서. 7백여 쪽의 분량이 말해주듯이 일반인들이 읽기엔 다소 박차지만 북한불교를 가장 소상히 알 수 있는 책이다.

이밖에 고려시대에서 조선후기가 지 그려진 금강산 그림을 통해 미술사를 정리한 <금강산도 연구>(일지

사 권)는 금강산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살핀 유일한 연구물로 꼽힌다. 어렸을 적 금강산에 자주 올랐다는 우종수씨(지리산학회)가 92년 펴낸 <금강산 가이드>는 실용적인 가이드 북으로 손색이 없다. 또 금강산의 역사와 전설을 담은 <보고 싶은 금강산>(덕수 권)과 금강산의 민족적 의미를 되새긴 <1485년, 금강산에서>(지식공작소 권) 등도 최근 출간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 해의신간

대중을 저버린 충성



참여불교운동가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스타 시바라키가 30여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기록한 자서전 <대중을 저버린 충성-참여불교>가 발간됐다. 이 책은

93·9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그의 인생과 태극 불교계의 집착을 잘 보여준다.

스타 시바라키는 "불교를 개인적 해탈만을 꾀하는 종교로 생각하지 말고 불교적 가치관을 사회와 정치의 안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Parallax Pr. 권. (p.p328 ISBN 1888375108)

사성제



"사성제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사성제-불교의 반석)은 달라이 라마가 환경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책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 책에서 환경의 오염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성제의 '고성(苦聖)과 '집성(集聖)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의 깨달음이 사회로 적극 환원될 때 욕망과 탐닉을 막을 수 있고 불교환경운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orsons Pub. 권. (p.p224 ISBN 0722535503)

일본불교사 중세

고대·근세·근대에 이은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의 일본불교사 시리즈가 최근 나온 <일본불교사 중세>를 끝으로 완결됐다.

<일본불교사 중세>에서는 고대불교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혁신적 종교운동을 통해 자기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중세불교에 대해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당시 지배층과의 대립과 긴장이 문화에 미친 영향, 불교와 서민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난 사회·정치·사상·문화의 성과 등을 종합했다. 오오스미 나카오(大隅和雄)·가즈오 다카이(尾尾亮) 編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권

## 원시불교·초기대승불교 흐름과 사상 '한눈에'

최봉수씨 '근본불교의 가르침'

근본불교의 가르침



<근본불교의 가르침>(경서원 권)은 인도불교 발전과정중 원시불교와 초기 대승불교 경전시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교학체계를 세웠다. 이 책은 붓다의 일생을 포함한 아함의 가르침과 반야·법화·화엄·정토 경전에 설해지는 가르침으로 구성되는 불교를 근본 불교로 통칭했다. 그리고 그 전체의 흐름과 사상을 구체적인 경전 자료와 함께 제공하면서 근본불교의 가르침에 접근하고 있다.

저자 최봉수씨(동국대 불교원전번역연구소장)는 "원시불교시대에는 붓다의 일생과 함께 원시불교의 주 자료인 아함과 니카야에 나타난 붓다의 가르침은 반드시 언급할 가치가 있고, 초기 대승경전들은 사상적으로 원시불교를 계승하며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붓다의 친실(親證)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 아래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됐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구성은 제1편에서 고타마 붓다의 불타관과 팔리 경전에서 본 붓다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편에서는 불교경전의 이해와 아함부 경전의 교리 체계 및 아함경의 몇몇 경전들이 담고 있는 가르침을 설명했다. 제3편에서는 반야부 경전의 사상과 반야부의 보살 4위 등을, 제4편에서는 법화경의 사상 및 정토부 경전과 불설 무량수경에 대해 언급했다. 한명우 기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어린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불교입문	조계종전집부	조계종출판사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여시아문
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7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통	효 림
8	화두 짓는 법	통방전집부	토 방
9	현대인과 선	양 기 불	대원정사
10	참선교육	현 담	수선출판사

귀업문의:(02)737-0695



## 삼화사의 어제와 오늘 '조명'

홍사성·박상준씨 '두타산과 삼화사'

삼화사는 1천3백년의 역사를 지닌 신라의 명찰. 자장율사가 처음으로 초막을 짓고 개산한 이래 법일국사 나옹선사 등 수많은 고승이 머물며 수도하고 교화의 당간을 높이 들었던 가람이다.

이런 유서깊은 역사를 간직한 삼화사(주지 원행)가 최근 통해시의 협조를 얻어 <두타산과 삼화사>(민족사 권)라는 제목의 사적지를 출간

했다. 필자는 전 불교TV 편성국장 홍사성씨와 동국대 역경위원인 박상준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삼화사 창건에 얽힌 관련 설화에서부터 각종 문화재와 그 가치, 현재의 당우와 주변 사찰에 이르기까지 50여쪽의 사진과 함께 한 눈에 알아보도록 정리했다는 점. 삼화사 창건과 역사, 관련 인물,

불교설화, 삼화사의 현재 등을 정리한 홍사성씨는 "홍수와 산사태, 화재 등 네 차례나 재앙을 겪은 사찰치고는 자료가 꽤 남아있는 편이다. 자기 역사를 남기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만도 큰 교훈을 남긴 셈"이라며 이 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삼화사 사적지에서는 인조9년 최시영이 저술한 <두타산 삼화사 고금조사적>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과 자장 조사전기 및 삼화사 중수기, 약사전 증언기 등을 실었다. 이밖에도 성암 김효원의 '두타산 일기'와 '삼화사의 신라철불좌상의 배가명기' 황수영 등 삼화사 관련 논문 3편을 부록으로 담았다. 한명우 기자

### 염불의 의미와 공덕 운주사 편집부 엮음

#### 염불삼매등 실천적 정토신앙 소개

우리는 대부분 어려울 때나 기쁠 때 '나우아미타불'을 나직이 읊조리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 물론 요즘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소리다. '나우아미타불'이 한마디에는 실로 수많은 공덕이 담겨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염하면 누구라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토사상이다. <염불의 의미와 공덕>은 염불신앙이란 무엇이고 정토신앙의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자세히 밝힌 입문서. 염불의 이익과 염불삼매에 드는 법, 입종시 염불의 공덕,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가 갖추어야 할 자세 등 실천적인 방법을 설명해 놓았다. (운주사, 3천5백원)

### 티베트 사자의 서 미쯔노라·유카리 지음

#### '사자의 서'의 사상과 활용현장 '생생'

죽음을 눈 앞에 둔 채팅팬들에게 마음의 정성가 초장은 '발도퇴돌'을 일곱 번이나 읽는다. 운회와 글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으라는 의미에서다. '발도퇴돌'은 우리에게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로 번역돼 알려진 티베트어로 된 경전. 이 책은 일본 NHK 취재팀이 라다크의 한 마을에서 죽어가는 노인에게 '사자의 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사상이 무엇인지를 실례를 들어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티베트 현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병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취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허일범·허영범 공역 <불교출판사, 1만2천원>

### 문화유산 상식여행 오주환 엮음

#### 문화유산 제대로 보고 느끼려면...

어느 전문가는 "이른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른 만큼 보기도 어렵거니와 본다 하더라도 아는 만큼 이해하기 힘들다. 체계화된 지식 없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상식여행>은 '답사의 기초 입문서'라고 할 정도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운 안내서. 특히 우리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탐, 부도, 석등, 당간지주, 전각, 불상, 불화, 불구 등 불교문화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있다. 전문 학술 용어를 쉽게 풀고 주석을 달았으며, 삽화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이토, 7천5백원)

우리 시대의 큰스님을 만나다!

# 삼승의 향기

큰스님 25인의 살아온 이야기

현대 한국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큰스님들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이 책은 그분들의 출가이야기, 수행이야기 그리고 후학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격려와 체적의 말들이 담겨있다.

우리결엔 언제나 큰스님이 있었네

청정한 삶,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오직 한 길로 정진하는 고집스런 삶,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무한한 애정 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가치들로, 그분들의 삶이 발산하는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관음 큰스님 · 구암 큰스님 · 덕암 큰스님 · 문성 큰스님
- 병홍 큰스님 · 비룡 큰스님 · 서암 큰스님 · 서용 큰스님
- 석주 큰스님 · 성수 큰스님 · 수산 큰스님 · 숭산 큰스님
- 승한 큰스님 · 운경 큰스님 · 운문 큰스님 · 원당 큰스님
- 월산 큰스님 · 율하 큰스님 · 용당 큰스님 · 일타 큰스님
- 진제 큰스님 · 청하 큰스님 · 해암 큰스님 · 화산 큰스님
- 달라이라마

이학중 저/신국판/255쪽/7,000원

운주사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 TEL:720-9372~3 FAX:723-0646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 탱탱크림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 1 기미·주근깨·고민하시는 분
-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비르고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기쁘게 15일이면 이기속속말은 귀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피부가 맑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이루어져야 행복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림이 책임집니다.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체·엄·사·례

저는 4세된 주부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신중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잔주름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흉다는 병명을 다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날 탱탱크림 비르고를 구입해서 피부와 얼굴을 보게 되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비르고 11일째쯤 피부가 깨끗해짐을 느꼈고, 15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없어지고, 피부가 하얗고도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이 다 5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은 화장이 안 먹히고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도 없게 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엄마)

서울시 광진구 종곡2동 132-10 무궁화B/D 4층

(주)한국원통

☎. 3437-8282

# 氣 功

여러분은 진정한 기의 세계를 접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의식 작용을 떠나서 달리 있는 것이면서 의식작용 그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호흡의 실상을 알아서 있어야 할 상태 그대로의 올바른 호흡을 뒤오려면 의식을 집중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려서 호흡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동시에 그 호흡이 무의식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호흡에는 정신집중이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것이 바로 공의 호흡이다. 호흡이 들고 나감이 아예 공의 도리를 벗어날 수 없으나, 호흡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조직도 공 그대로의 생명의 연속이다. 우리 마음 역시 공의 도리에 따르고 있으니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여 들고 남을 감지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오지는 단계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실천인 것이다.

※ 뜻있는 모든 불자 및 스님분들에게 직접 전수 (왕림시 기체크 무료!)

재단법인: 대한불교 대성종

향림선원 ☎(0431) 292-9090~1